

Economy Brief

유가 장세, 유가만 바라보고 있는 금융시장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유가 급락 배경: 미국-이란간 정상회담 기대감 및 사우디의 원유 수출 확대에 따른 원유 수급 완화 가능성
이란문제, 즉 대화와 군사 공격 재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형국임
주요 자산가격이 유가 추이만 바라보는 유가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

중동 불안 확산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급락했지만 안심하기는 이른 단계

중동 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큰 폭 하락하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에도 혼풍이 불었다. WTI 가격이 전장대비 4.52달러 (4.51%) 급락한 95.78달러까지 급락했다. WTI 증가가 100달러를 하회한 것은 지난 9일 이후 처음이다.

유가 급락의 주된 배경은 두가지다. 첫번째 이유는 미국-이란간 정상회담 기대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UN 총회에 참석하는 폐제시키안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 부각되면서 유가 안정에 일조했다. 그러나, 양국 정상 회담이 성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제시키안 대통령과 만남이 열려 있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회담 계획이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두번째 이유는 사우디의 원유 수출 확대 기대감이다. 후티 반군과의 군사적 충돌로 사우디가 홍해로의 원유 수출이 차단된 상황에서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출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 원유 공급차질 우려를 완화시켜 주었다. 참고로 유조선 추적 데이터를 보면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전날 걸프만에서 초대형 유조선 7척에 원유 1천400만 배럴을 선적했다. 지난 몇년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사우디 원유는 일평균 290만 배럴로 추산되고 있다.(연합인포맥스, 9월 22일 기사참조)

유가 급등세가 일단 진정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유가 하락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미국-이란간 협상 가능성도 잠재해 있지만 기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폐제시키안 대통령간 만남이 불발될 경우 미국의 대규모 대이란 공격이 시작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우디의 홍해를 통한 원유 수송 역시 이란측의 공격으로 또 다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잠재해 있어 유가의 추가 하락을 예단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TACO가 언제든지 재연될 여지는 있다. 무엇보다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1.2기 재임기간을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및 공화당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21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2%로, 일주일 전 조사(35%)보다 3%포인트(p)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경력 사상 가장 낮은 지지율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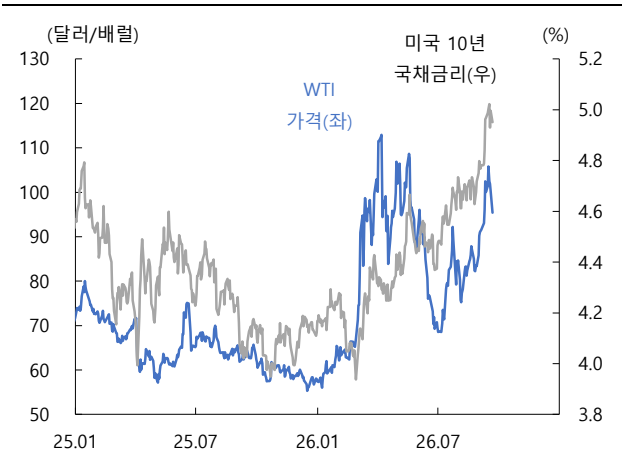
만약 현재의 고유가-고금리 현상이 중간선거까지 이어질 경우 하원은 물론 상원마저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란 문제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처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재개할 경우 중간선거까지 100달러 수준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고유가 현상이 지속될 것이고 이는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로 나타날 여지가 크다. 동시에 100달러를 상회하는 고유가 현상이 지속된다면 미 연준의 10월 추가 금리인상도 확률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이란문제, 즉 대화와 군사 공격 재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유가 장세 당분간 이어질 듯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유가 급락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반색했다. 유가 급락이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와 미 연준의 금리정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 낙관론에 대한 기류가 재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마저 안정을 찾는다면 주식시장이 상승 모멘텀이 한층 강화될 여지가 크다. 무엇보다 9월 FOMC회의를 거치면서 미 연준의 금리인상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상황에서 유가 안정마저 가시화된다면 장기 국채금리의 추가 상승 리스크가 크게 해소될 수 있음은 주식 및 채권시장은 물론 여타 자산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현상을 반영하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음은 국채금리 안정 기대감과도 맞물려 있다는 판단이다.

주요 자산가격이 유가 추이만 바라보는 유가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그림1.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간 대면 가능성으로 큰 폭 하락한 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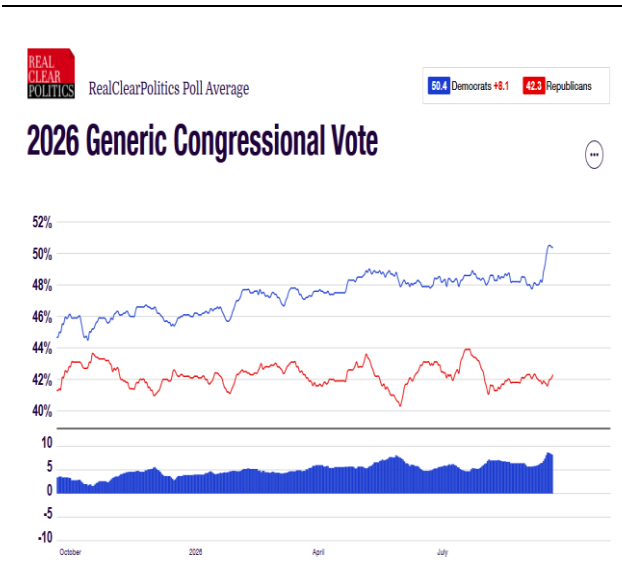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22년 러-우 전쟁 당시 수준을 넘어선 미국내 디젤유 가격



그림3.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 승리를 예상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자료: www.realclearpolling.com,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상원 선거에서도 민주-공화당간 박빙 승부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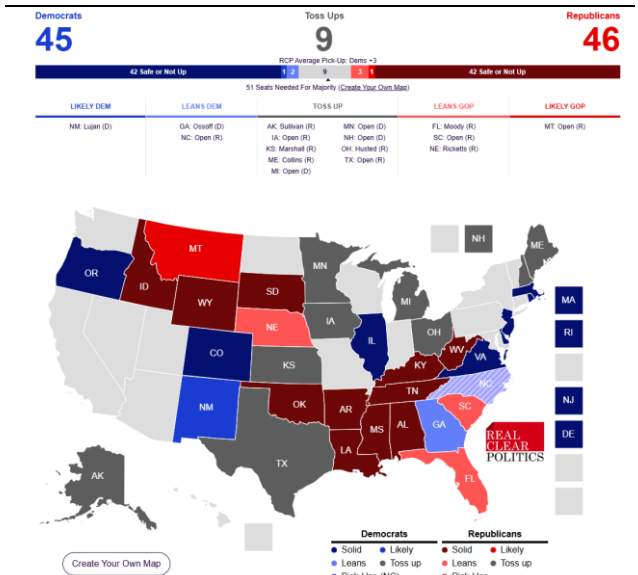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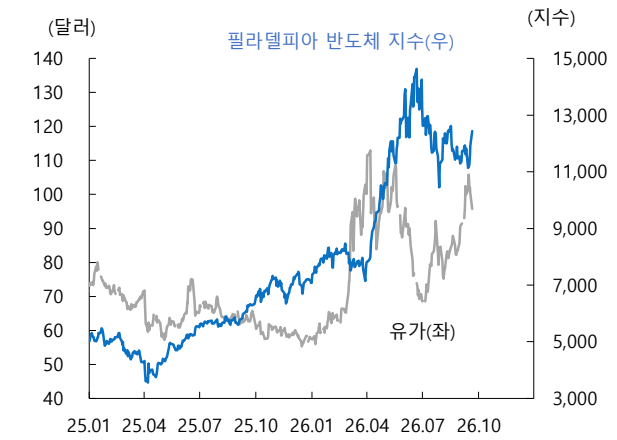


그림5. 유가와 국제금리 하락 등으로 급등한 비트코인 가격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AI 낙관론과 유가 하락으로 급등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